

“선거 유세는 여기에 와서 하라”

조희성 구세주님 말씀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정국이라 분주하다. 각 당들은 대선후보를 정해 본격적인 유세를 할 것이다. 그들은 표가 될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사실 구세주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선거유세를 다른 곳에서 하지 말고 먼저 구세주를 찾아와서 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당신이 찍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때문이었다. 승리신문 732호(2017. 4. 1. 발행) 노태우 대통령 당선비화 기사를 읽어보면 구세주가 접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대선후보들이 잘 찾아오지 않았다. 그걸 믿는 후보는 아무도 없었다. 유일하게 노태우 후보 친삼촌 노병삼 씨만 왔었다. 김대중 후보 때까지 찾아온 후보는 없었다. 다만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진주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하순봉 후보가 구세주 조희성님을 찾아와서 당선시켜 달라고 부탁한 유일한 정치인이다. 구세주께서는 하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약속하였고, 무소속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하 후보는 진주에서 60.68%의 고른 지지를 당선되었다. 이는 구세주께서 분신으로 역사하여 당선시킨 사례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세우시다

그 후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사실이 정치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대선 유세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 참모 몇 명이 구세주 조희성님의 집무실에 직접 찾아왔다. 그들은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밀어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하였다. 구세주께서는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꼭 되니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중에 먼저 찾아오



2002.12.20. 매일경제신문 노무현 후보 사진에서 이슬성신이 찍혔다(중앙 하단 빛이 들어간 부분) 노 후보가 구세주가 접지한 후보임을 증거하는 사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국민들 여론은 노무현보다는 이회창에게 가 있었다. 대쪽 이미지를 앞세운 이회창 후보는 대법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화려한 스펙으로 인기가 높았는데다가 여론도 이회창에게 높은 지지를 보이며 계속 1등을 주고 있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사실 민주당 경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신성처럼 등장하였기 때문에 국민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보수 우파에서는 대권 재수 후보 이회창을 내세워 정권 창출을 위해 애를 썼다. 바람을 일으킨 노무현 후보는 막판에 정몽준 후보와 후보 단일화 결렬로 사실 낙선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당선이었다. 당시 필자는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구세주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호 조건을 열어나기려면 하늘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며 노무현 후보를 접지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간 후부터는 노무현 후보의 연설을 들을 때 구세주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을 보아 구세주께서 노 후보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 후보 연설 시 이슬은혜가 찍힌 사진이 매일경제신문에 실려 구세주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기도 하였다.

구세주를 외면하는 대통령

구세주의 말씀대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인간으로서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가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이었다. 승리제단 교인들은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구세주 조희성님

은 전지전능을 회복한 하나님의 신이 좌경해 계신 분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구세주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두고 “노무현의 승리는 승리제단의 승리”라고 평가하셨다. 그동안 대통령을 세운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 당선 경우에는 하나님보다는 승리제단을 거명하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법적 투쟁에서 무죄와 보장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승리제단 교인들과 정치인들은 전혀 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구세주 조희성님을 찾아오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다거나 운이 좋거나 전략의 승리로만 생각할지는 모르나 그 배후에는 구세주의 놀라운 권능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이다. 만일 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구세주를 찾아왔더라면 비극적 운명을 맞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구세주는 전지전능을 회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날은 훨씬 밝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구세주를 모르는 것이 죄이다. 죄를 지면 손해를 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다음 대통령이 승리제단의 구세주 역사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는 한국사 및 세계사에서 길이 빛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누가 과연 그 복을 받을 대통령인지 궁금하다. 그가 또 승리제단을 외면한다면 그도 앞의 대통령들처럼 그저 그런 대통령이 되고야 말 것이다.*

3지역 4개월만에 1등



3지역 정은경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월 만에 다시 1등을 차지하였다. 6지역이 지난 달 1등에 이어 2등을, 탄탄한 전력의 4지역이 3등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개인성적으로는 윤금옥 승사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등, 이교순 권사가 2등, 박인화 권사가 3등을 차지하였다. 구역성적은 58구역이 1등, 42구역이 2등, 13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이번 3월 성적에는 1지역부터 6지역까지 한 지역도 빠지지 않고 시상대상에 해당되어 6개 지역이 모두 상을 받았다. 이는 모두가 열심히 하여 모든 지역이 고르게 시상권내에 들었다는 것이다.

윤봉수 회장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희망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세를 몰아 전도에 박차를 가하자. 4월 3일, 5지역이 올

해 처음 전도를 나갔다. 다른 지역도 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두 열심히 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2등: 6지역(지역장: 안병천, 지회장: 석선자)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구역 1등: 58구역(구역장: 윤금옥)
2등: 42구역(구역장: 이교순)
3등: 13구역(구역장: 이교순)

*개인 1등: 윤금옥 승사
2등: 이교순 권사
3등: 박인화 권사*

2017년 3월 성적에서 3지역이 2016년 11월 이후 4개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05)

“완성자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완성자가 되면 다시는 떨어질 수가 없고 다시는 인간의 위치에 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자가 된 다음부터는 인간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굳어지면서 완성자가 되면 그대로 영원무궁토록 사는 하나님의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 명만 완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완성자가 되

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완성자가 빨리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道)를 완성한 자는 매순간 영생의 확신이 마음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영생의 확신이 있고 또한 영생의 희망에 불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도의 길



1.01 x 365 = 368.65

승리제단은 구도(求道)하는 곳이다. 구도란 무념무상(無念無相)의 경지를 이루는 과정이다. 무념무상은 생각이 없는 경지이다. 그렇다고 무념무상은 멍한 상태는 아니다. 불가(佛家)에서도 이를 경계하여 자기가 멍한 상태에 있으면서 마치 무념무상의 경지를 체득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를 무기공(無記空)이라고 하여 경계하였다. 무념무상은 마귀(마)의 마음이 말하고 하나님(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이다. 이는 지고지순(至高至純)의 정결한 마음, 대자대비의 사랑의 마음, 무소불능의 권능의 마음, 영생의 확신의 마음뿐이다.

조계종과 원불교 등에서는 도를 이루기 위해 화두(話頭)를 잡고 수행하는 참선(參禪)을 한다. 특히 조계종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 참선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골방에 틀어박혀 화두(話頭)를 천착(穿鑿)한다. 수년 간 토굴에서 사색결단을 하듯 화두와 싸우는 스님도 있다. 그들 중 더러는 깨달았다고 깨달음을 4언절구 한시(漢詩)로 읊는다. 소위 이를 경성(見性) 즉 자기의 본래 성품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시로 읊는 것을 계승(偈頌)이라고 한다.

자신의 본래 성품이 하나님(부처님)이라는 것을 구세주는 귀에 박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모를 교인(敎人)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은

불교인들처럼 경성을 위해 화두 수행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석가세존도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을 상문(上聞)이라고 하여 도의 높은 경지로 칭하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구세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의 경지에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승리제단의 진실된 교인이라면 적어도 경성 단계에서 구도(求道)를 시작하게 된다. 자신이 하나님(부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경성 단계이므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 자신이 부처(하 나님)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 속의 부처(하나님)를 키워야 한다. 그것이 영의 싸움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의 싸움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하여야 한다.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 그것도 힘들다면 일주일에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야 한다. 만일 어제보다 오늘 !%만큼 성장한다면 일 년이면 368배가 된다. 1에서 시작하여 368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초로 성장하셨다고 한다. 일초 전보다 일초 후 배 이상 성장하셨다고 한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매일 1.01만큼만 성장하자.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 썩은 내가 풀썩 난다. 향기 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모를 교인(敎人)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은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증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청주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진해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